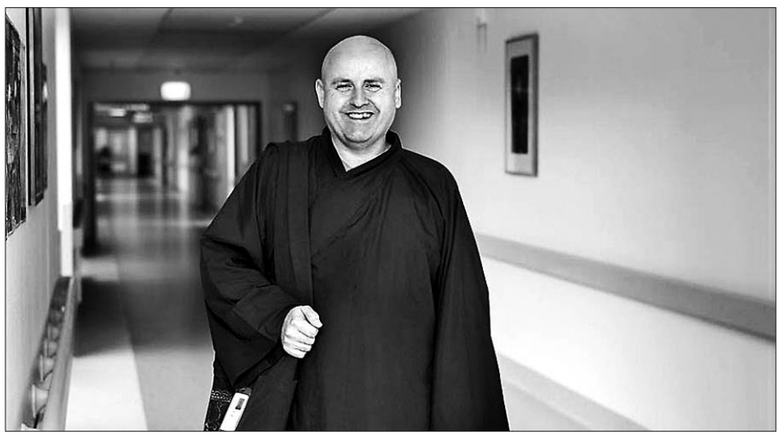
‘불교적 친절’ 모토로 호주에 ‘선근’ 심다

환자와 이재민 마음 추스르는 호주의 앨런 스님


앨런 스님은 타즈마니아(Tasmania) 섬에 있는 버니(Bunnie) 지역병원의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섬에서 스님으로서 병원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유일하다.

앨런 스님은 15년간 펭귄 소방대의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니 지역병원 종교시설 운영
펭귄 소방대 자원봉사 활동
“타즈마니아에 불심 전파할 것”

호주의 ‘제주도’로 불리는 타즈마니아(Tasmania) 섬에서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스님이 있다. 바로 앨런(Alan Piercey) 스님이다.

〈ABC〉지는 “호주 노스웨스트 해안가 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스님이 있다”며 “지역 병원의 법당에 주석하며 환자의 마음을 안아주고, 때론 화재 현장에 긴급 출동해 화마와 싸우는 수행자”라고 앨런 스님을 소개하고, 집중 조명했다.

앨런 스님은 중국불교계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스님(Monk)’ 외에도 ‘시푸(Sifu)’, ‘굿 맨(Good Ma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친숙하기 때문이다.

앨런 스님은 “중국불교의 정토종에서 ‘시 진강(Shih Jingang)’이라는 법명을 수지하고, 비구계를 받았다”며 “그런데 지역 주민들, 특히 버니(Bunnie) 지역병원의 환자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에 등장하는 ‘시푸’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좋아한다”고 말했다.

〈ABC〉지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시푸’의 뜻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고 있다. 사실 타즈마니아 섬에서 유일하게 ‘목사’ 아닌 ‘스님’이라는 신분으로 병원 내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앨런 스님에게 가장 적절한 호칭일지도 모른다.

또한 앨런 스님이 15년 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펭귄 소방대’에서는 ‘굿 맨(Good Man)’으로 불리고 있다. ‘굿 맨’이란 호칭은 타즈마니아 산불예방 캠페인에 등장하는데, 앨런 스님은 캠페인 관련 홍보물의 모델로 선정,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리게 됐다.

〈ABC〉지에 따르면, 앨런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타즈마니아 섬의 버니 지역병원 법당에서는 15년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며 수상한 다양한 트로피를 볼 수 있다. 이중에는 2013년 수상한 ‘올해의 소방관’ 상도 있다. “15년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소방관의 도움이 크다”고 말한 앨런 스님은 “병원 환자들과 함께 매일 명상을 하는데, 이때마다 비상 호출기를 꺼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가능했다”며 “화재 현장에 늑장 출동할 때마다, 그 ‘미안함’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앨런 스님은 그가 7세가 되던 때 불교에 입문했다. 당시 맞벌이를 하던 스님의 부모님은, 출근할 때마다 이웃집 노부부에게 보육을 부탁했다. 그때 스님을 돌보았던 노부부가 바로 독실한 불자였다.

“이웃집 할머니는 나에게 항상 인도의 왕자(싯다르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기억을 더듬은 앨런 스님은 “그 경험이 내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숱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결코 지치지 않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앨런 스님은 “병원 법당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소방관을 하는 것은 ‘포교’를 생각해서가 아니다”고 말한 앨런 스님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친절’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하길 주저하지 않는다”며 “이는 환자를 만날 때도, 이재민을 도울 때도 ‘포교’ 보다 먼저 기억하고 실천하는 단어”라고 강조했다.

한편 〈ABC〉지는 “앨런 스님이 환자와 이재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초콜릿 유통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유통업 수익 전액은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쏟을 예정”이라며 “‘친절’을 모토로 스님의 다양한 대 사회 활동은 작게는 버니(Bunnie) 지역, 넓게는 타즈마니아 섬 전체에 이르기까지 선근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애리조나대, 불교 통한 대학생 사유 확장

‘불교 교육 프로그램 강화’…4월부터 ‘선고전 읽기’ 강좌 개강

애리조나대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

애리조나대학이 오는 4월 14일부터 동아시아의 종교, 특히 불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신설, 공개강좌에 들어간다.

〈UA News〉지는 3월 17일 “미국에서 동양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주목, 불교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오는 4월 14일부터 학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와 그 가치의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리조나대학의 이 같은 교육 방침은 동아시아 경제 규모가 상승하는 데 따라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가 동아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를 폭넓게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애리조나대학 동아시아학과장 앨버트 웰터(Alber Welter) 교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업으로 배우고 체화한 ‘사유 체계’를 동아시아의 철학이나 윤리에 접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애리조나대학 내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관련 모든 연구 성과가 펼쳐지고, 또 새롭게 읽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과장 웰터 교수에 따르면 ‘컨플렌센터(Confluencenter for Creative Inquiry)’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첫 강좌는 4월 14일 대학 내 시 학관(Poetry Center)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이는 ‘선(禪) 고전 읽기’를 주제로 한 시리즈의 첫 번째 강좌로, 셀레스티노 페르난데스(Celestino Fernandez, 사회학) 교수가 ‘금강경’을 기본 교재로 삼아 ‘불교와 행복’에 대한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로 5월 4일 지앙 우(Jiang Wu, 동아시아학) 교수가 ‘법화경의 세상에서의 종교적 상상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UA News〉지는 “캠퍼스에서 불교란 여전히 ‘과거의 종교전통’ 일 뿐”이라는 우 교수의 말을 인용, “이는 불교가 역사、문화、철학적 주류 맥락에서 소외됐기 때문인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그 간극을 매우는 한편 학생들의 사유에 불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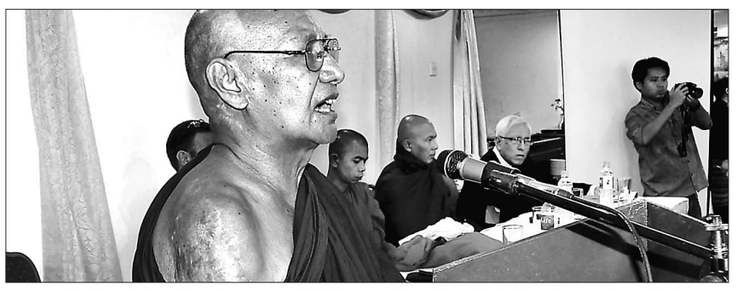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불교 연구 성과물이 학생들과 교감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게 큰 의미”라고 강조한 ‘컨플렌센터의 하비에르 듀렌(Javier Dur?n) 이사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애리조나대학 불교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차세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컨플렌센터는 ‘영성에 근거한 학제간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연구 재단으로, 이 재단에서 선보인 ‘명상에 기초한 농장 혁신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반향을 일으켰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스님들 코코 前 내무장관 고소

2012년 레파타웅 구리 광산 반대 시위 과잉진압으로


레파타웅 구리 광산지역서 벌어진 시위현장에서 팔에 화상을 입은 미얀마 스님이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얀마 스님들이 코코(Ko Ko) 前 미얀마 내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 ‘Justice Trust’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스님들은 지난 2012년 모니아(Monywa)의 레파타웅(Letpadaung) 구리 광산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화상을 입었다.

레파타웅 구리 광산은 미얀마 군부와 중국 완바오(Wanbao Mining Copper Ltd.)가 공동 운영 중인 광산으로, 환경 훼손과 강제 토지 수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2년 시위 현장에는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스님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미얀마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백린 수류탄을 사용, 시위대 선두에 섰던 100여 명의 스님들이 화상을 입었다.

AP 통신은 ‘Justice Trust’의 보도 자료를 인용, “당시 과잉진압으로 57명의 스님들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며 “미얀마 경찰의 과잉 진압을 허가 코코 전 내무장관이 이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할 것”리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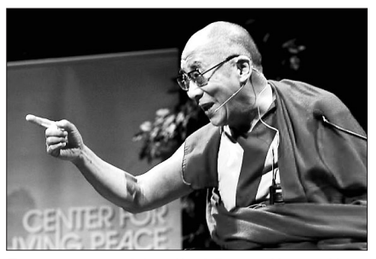
동,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철, 석탄, 석유, 보석류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갖고 있는 미얀마는 1994년 광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외국 업체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AP 통신은 “레파타웅 구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9년 타광 타웅(Tagaung Taung) 니켈 광산을 시작으로 미얀마의 주요 광산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파타웅 구리 광산 사태를 지켜본 미얀마의 역사학자이자 〈중국이 인도를 만나는 곳 : 미얀마와 아시아의 새로운 교차로〉”의 저자 탄민우(Thant Myint-U) 박사는 “중국은 자신들의 투자의 영향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얀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라마, 80세 생일 美오렌지카운티서



달라이 라마가 오는 7월 오렌지카운티에 온다. 사진은 지난 2011년 UC어바인에서 강연을 하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80세 생일을 오렌지카운티에서 맞는다.

OC레지스터는 달라이 라마 측의 공식 발표를 인용, 그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전세계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행사가 오는 7월 5일 애너하임의 혼다센터에서 열린다고 13일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의 생일은 7월 6일이지만 축하 이벤트는 이보다 하루 앞서 열리는 것이다.

혼다센터는 1만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가 애너하임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일축하 이벤트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컴패션 서밋(Global Compassion Summit)’ 행사의 일환이다. 달라이 라마는 생일잔치 이틀날인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UC 어바인에서 열릴 강연과 패널 토론 등의 이벤트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UC어바인에서 열리는 행사는 어바인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 ‘리빙 피스 센터(Center for Living Peace)’가 대학 측과 함께 마련한다. 달라이 라마는 이미 두 차례 어바인을 방문한 바 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로 여겨지는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정치적 망명을 한 이후 인도 북부에서 살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5,0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